

국제수산월간동향

2022. 6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목 차

- 1 불확실성을 직면하는 러시아 수산물 시장
- 2 일본 수산물 가격 공급 차질과 엔화 약세에 지속 상승
- 3 MSC, 관리위원회 만장일치로 신규 어업 기준 승인
- 4 중국, 수입 연어 가격 인상으로 연어 소비 추세 위협
- 5 Balfego, 올해 참다랑어 조업 완료
- 6 컨테이너선 운임에 관한 미국 정부와 업계 갈등

□ 러시아 수산부 서방 제재 조치에 사전 예방적 조치 실행

- 지난 2~3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실행되자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동시에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를 이탈하며 러시아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이에 러시아 수산부는 작업반(working group)을 개설하여 조업, 수산물 배급, 수산물 소매가, 그리고 공해 및 타국 EEZ에서 조업하는 러시아 선사의 활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함
- 러시아 수산부는 소득에 대한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며 소비자들 사이 긴장감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상점에 물품까지 줄어들기 시작하면 사람들 마음에 공포가 퍼질까 우려하고 있음
-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지난 3월까지의 비교적 괜찮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
 -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월 15일 수산물 가격은 4.63 퍼센트 상승하였으나, 17.62 퍼센트 증가한 전체 식품 가격보다 낮은 상승폭을 보임
 - 4월 말 기준 청어, 대구 등 어종의 가격은 3월 보다 하락하였음
- 러시아 수산물 부문은 5백만 톤의 연간 어획량으로 기타 식료품 부문보다 상황이 나은 편임
 - 러시아의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약 3.15백만 톤이며, 나머지 물량은 수출됨
- 5월 4일 기준 러시아 수산업계의 어류 및 게 어획량은 1.71백만 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하며,
 - 올해 1분기 양식 생산량은 약 157,000만 톤으로 지난해 대비 4 퍼센트 증가하였음
- 아직 소매시장에 수산물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러시아 정부와 무역 단체들은 위기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러시아 수산부와 러시아 업계 연합(VAPRE)은 4월 말 공동으로 어획량, 수

입/수출량, 소매 시장, 도매가 등에 대한 정보를 주간으로 수집하여 VAPRE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수산물 수급의 균형과 공급 사슬에서의 차질을 식별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 일상은 유지되고 있으나 러시아 수산물 시장에 대한 소비자 전망은 밝지 않음
- 가계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있음
 - Zarplata.ru가 실시한 조사의 응답자 중 44 퍼센트는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소비를 줄이고 있으며, 12 퍼센트는 외식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답변함

※ 출처: Seafoodsource¹⁾

1)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russian-seafood-market-facing-rising-uncertainty>

□ 일본 어묵 생산업체들 가격 상승, 또 한 차례 가격 상승 예상

- 일본의 주요 어묵 생산업체들이 지난 2월부터 제품가격을 올리고 있음
- 일본에서 가장 큰 어묵 생산기업인 Kibun Foods는 지난 2월 28일부터 자사 어묵 제품의 가격을 8 퍼센트 상승시킴
 - Kibun Foods는 원료 가격, 운송, 포장, 에너지 비용 등의 상승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하여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였다고 설명
 - Kibun Foods 다음으로 규모가 큰 Ichimasa Kamaboko와 Sugiyo Co., Ltd.도 지난 3월 1일 제품가를 5~15 퍼센트 증가시킴
- 현 상황을 보면 또 한 번의 어묵 가격 상승이 예상됨
- 연육 월간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어묵 평균가는 지난해 대비 10 퍼센트 상승한 킬로당 JPY 460이며, 이는 킬로당 JPY 380에서 가격 상승이 발표된 지난해 11월에서 또 한 차례 상승한 수치임
 - 어묵 가격 상승에는 베링해 알래스카 대구 쿼터 감소와 해외 수요 증가, 그리고 엔화 약세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상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 복잡해지고 있음
 - 2021년 러시아는 일본에 성게, 홍연어, 알래스카 대구알 등을 공급하는 주요 수출국이며,
 - 본 어류들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결제망에서 러시아가 제외되며 거래 납입이 복잡해지고 있음
- 그 결과 상기 수산물 원재료들의 수입이 줄고 가격이 상승하였음
 - 성게의 경우 가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치솟았으며, 러시아산 홍연어는 16퍼센트 상승함
- 수입 감소와 더불어, 국내적으로 어민 수 감소에 따른 오징어 양륙량이 줄어드는 것도 어묵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출처: SeafoodSource²⁾2)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gulf-of-mexico-commercial-fishing-groups-sue-us-government-over-red-grouper-reallocation>

- 해양관리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는 4년간의 노력 끝에 신규 어업 검토 기준을 수립하였음
- 신규 어업 기준은 MSC가 멸종 위기 또는 보호받는다(Endangered, threatened, or protected, ETP) 종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며, 상어 피닝 및 원치 않은 어획의 경우 관리 방안에 대한 기준을 포함함
 - 해양 생물 다양성 보호 등과 같은 해양의 중요 및 까다로운 문제를 다루며 해양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규모 및 신규 진입 기업들에게 지속가능한 시장-중심의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됨
 - 신규 기준은 2022년 10월에 발간될 것이며 2023년 5월부터 정식으로 어업 평가에 적용 될 것임
 - 이미 인증을 받은 어업의 경우 신규 기준에 적용할 수 있도록 6년의 기간이 주어짐
 - 신규 기준에는 하기 사항들이 포함됨:
 - 1) ETP종들의 보호 및 개체수 회복을 위한 지원
 - 2) 어선 보유 상어는 "자연적으로 붙어있는 지느러미(fins naturally attached)" 정책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것
 - 현 상어 피닝 금지 항목을 더욱 강화 시킬 것으로 전망
 - 3) RFMOs에 의해 관리되는 다중관할 어업의 "신뢰 가능하고 강력한 어획 전략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 4) 바닷새를 포함한 생물종의 부수어획 관리를 위한 신규 의무 사항

※ 출처: www.seafoodsource.com ³⁾

³⁾<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msc-new-fisheries-standard-unanimously-approved-by-trustees>

- 중국의 수산물 마케팅 자문회사의 대표 Fan Xubing에 따르면, 수입 연어 가격의 꾸준한 상승으로 중국의 장기적인 연어 소비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대서양 노르웨이 자연산 연어의 중국 수출 가치가 전년도 대비 67퍼센트 증가한 반면 수출량은 11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급등은 COVID-10 이후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많은 세계 시장이 회복함에 따라 연어의 가격이 세계적으로 급등한 결과이며
 - 우크라이나 전쟁 및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도 가격 인상에 한몫을 한 것으로 예상함
 - 이런 이유로 중국의 소비자들은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연어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있는 추세임
 - 중국은 자연산 연어를 80퍼센트 또는 그 이상을 일본 식당에서 소비하고 있으나 2022년 상반기 중국의 코로나 통제로 호텔, 식당 등에서 생연어를 소비하는데 제한이 있었음
 - 이로 인하여 중국은 더 높은 연어 가격을 받아드릴 수 밖에 없음
 - 생연어 소비자들은 대부분 고소득자들임을 감안하면 한동안 가격인상에도 소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연어의 건강한 소비를 해칠 수 있음
 - 실제로 2021년 및 2022년에는 일부 소비자들이 국내 수산물 및 저렴한 수입 수산물 소비로 옮긴 것으로 나타남
 - 수입 연어 가격이 인상되면서 현지 양식 송어가 수입 연어의 대체품이 될 수 있어,
 - 2021년의 경우 정부가 수입 수산물을 제한함에 따라 현지 양식 송어 수산업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음

※ 출처: www.seafoodsource.com 4)

4)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chinas-salmon-consumption-growth-imperiled-by-higher-import-prices>

- 세계 최대 참다랑어 조업 및 판매 회사인 Balfego가 올해도 배정받은 참다랑어 쿼터를 11일만에 모두 소진하였음. 포획된 참다랑어는 평균 150kg이 넘는 개체들임.
- Balfego는 대규모 참다랑어 어군들을 발견하였으나 작업상 위험을 피하고 개체 보존을 위해 포획하지 않았음.
- Balfego 선망선들은 서부 지중해에서 올해 참다랑어 조업을 완료하고 이미 L'Ametlla de Mar 항구에 정박하였음. Balfego 가족들이 선장으로 있는 선단은 올해 무역협정에 의해서 선단에 배정된 2,485톤의 쿼터를 모두 소진하였음.
- 올해에도, 대규모 참다랑어 어군들을 발견하였지만, 작업상 위험을 피하고 개체 보존을 위해 포획하지 않았음. 사실, Balfego 선박들은 평균 150kg을 초과하는 성어 개체들만 포획해 왔음. 이러한 의미에서, 또한 2년 연속으로, 참다랑어 어업에 관한 선도기업인 L'Ametlla de Mar사는 조업 중 선원 안전과 자원 보존을 위한 회사 조업규칙을 적용하였고 이는 상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한편, 선단 내 모든 선박 - 선망선 9척, 예인선 16척, 보조선 5척 - 간 디지털화 및 자동화는 어획 기록, 증명, 정보전달을 최적화하고 간소화하였음. 선단 내 각 선박은 태블릿, 이메일, 안테나 및 위성을 통한 라우터를 갖고 있음.
- Balfego 부회장 Juan Jose Navarro는 “우리는 배정받은 쿼터를 단기간 내에 모두 소진하여 만족스럽게 조업을 완료하였다. 참여한 모든 선박과 선원들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음.
- Balfego에 의해 지휘되는 선단은 30척의 선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선망선 9척 (Balfego 선박 2척, 스페인 선박 1척, 프랑스 선박 4척, 이탈리아 선박 2척) 예인선 16척, 보조선 5척.

출처: www.seafood.media 5)

5) <https://www.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l=e&id=118378&ndb=1> (2022년 6월 9일 기사)

- 백악관은 컨테이너선 운임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에 약 1% 추가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였음.
- 지난 10년간, 세계 최대 9개 해운사들은 시장지배력을 증가시켰음. 백악관에 따르면, 이 9개 선사들이 세계 컨테이너 해상 운송 물동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동서 주요 해운 항로의 약 95%를 통제하고 있다고 함.
- 식량, 에너지와 같은 다른 요인들도 인플레이션에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 체인 개선은 지난 1년간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목표였음. 미국 정부는 6월 10일에 5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할 예정인데, 8.2%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 수치는 올해 초에 기록한 40년 최고치에 근접한 수치임.
-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 연설할 예정으로, 동 항구는 병목 현상과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24시간 작업체제로 전환되었음.
- 컨테이너 선사들을 대표하는 세계해운협의회(WSC)는 화물운임 상승은 해운사들이 아닌 전례 없는 수요로 인한 것이라고 맞받아쳤음.
-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컨테이너 운송은 경쟁이 심한 산업으로 여러 선사들이 세계 시장과 특히 미국 교역 항로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세계해운협의회 회장 John Butler는 말했음.
- “팬데믹 와중에도 전례 없는 수입 상품들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역사상 유래 없는 양의 화물을 실어나르고 있는 업계에 근거 없는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실망스럽다”
- “미국으로의 해상운송 서비스 수요가 역사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해운동맹이 아닌 시장 상황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진실이다.”
- Butler는 선박 공유 약정과 동맹을 변호하였음 : “이러한 선박 공유 약정(VSA)들은 컨테이너선들이 선박 공간을 상호 공유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항구에 보다 많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순수한 작업적 목적을 갖고 있다.”

- “이 작업 약정은 상업적 협력을 포함하지 않는다. VSA 각 회원 또는 동맹은 각 계약 조건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동맹 회원들 간 논의대상이 아니다. 각 VSA는 FMC에 의해서 접수, 검토 및 계속적으로 감시된다”고 그는 말했음.
- 하원에 의해 승인되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2021년 해상 운송 개혁법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음 :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세계 운송 시스템을 뒤집고, 미국 수출입업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줄이고, 미국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비용을 올릴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의회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혼잡을 줄이고 미국 공급 체인의 장기적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 출처: www.seafood.media ⁶⁾

6) <https://www.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l=e&id=118419&ndb=1> (2022년 6월 10일 기사)